

여성학의 발전과 새로운 敎材 開發

—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Ⅱ —

姜 男 植

(韓國女性研究會 研究委員)

새로운 敎養敎材 개발

1. 學問의 主體性 확립과 土着化의 과제
2. 새로운 政治學을 위한 모색
3. 새로운 韓國史像과 敎材 開發
4. 社會學 敎양교재 개발의 意義와 展望
5. 哲學敎材 改編의 필요성과 그 方向
6. 女性學의 발전과 새로운 敎材 開發

1. 女性學과 女性問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한국에서 여성학이 뚜렷한 女性解放論的 시각을 가지고 ‘女性學’이라는 강좌명으로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지 약 15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었다. 여성학이 獨自的 學問 분야로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 학문적 깊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상승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각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개설이 일반화됨으로써 여성학의

大衆的 擴散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77년 이화여대에서 단 한 강좌의 敎養選擇으로 시작된 여성학은 현재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전문대학의 여성교양과에서 개설한 과목까지 합하면 전국 90여 개에 가까운 대학에서 여성학이나 그 관련과목을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여성학 개설 학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여러 학문분야 중에서도 가장 급속한 발전과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 학문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에도 여성학은 아직도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라는 問題提起와 “과연 필요한 학문인가”라는 학문으로서의 存立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학이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불분명하고 체계와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의 역사가 일천하여 연구자층이 얇고 연구자의 지식 축적이나 연륜이 짧기 때문인데, 연구자와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누적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는 초기 여성학 연구자들이 서구 여성학을 부분
 별하게 도입한 결과로 여성학과 여성문제에 대
 한 인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학
 과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먼저
 여성학의 성립배경과 여성학의 성격, 여성문제
 에 대해 간략히 실명하고자 한다.

여성학은 1960년대 서구사회를 흔들어 놓았
 던 反戰·反人種差別主義 운동의 와중에서 배제
 된 여성운동의 理論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968년 미국의 한 대학의 교과목으로 포함되
 면서 시작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학문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新左派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운영에의 참여가
 가능해져 교육과정 개편 및 휴학과 소수민족을
 위한 강좌 개설 등 일련의 改革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개혁들은 운동을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한 여성, 곧 여학생들의 요
 구와 문제는 완전히 배제·무시된 것이었다. 사
 회운동의 과정에서 노골적인 性差別과 부당한
 대우로 고통을 겪던 여성들은 격분하게 되었고,
 여성문제를 흑인 및 소수민족의 문제보다 더 심
 각하고 本質的 問題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獨自의 組織을 결
 성하고 적극적으로 女性解放運動을 전개하기 시
 작했다. 그러나 곧 여성해방 이론의 不在로 인
 한 지속적인 실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의 이론 정립을
 위한 교과목 개설을 요구하게 되어 대학의 교과
 목에 여성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발전한 미국 여성학은
 實踐性과 여성문제의 特殊性을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 되었다. 여성운동의 이념적·이론적 근
 거의 제공이라는 실천적인 여성연구는 여성학의
 생명력으로 간주되었고, 여성해방은 여성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문제의 특
 수성을 강조하는 여성학 이론의 발전은 여성문
 제를 보편적 사회문제와는 별개의 모순구조를
 갖는 독자적인 문제로 설정하거나, 심지어는 사
 회의 가장 본질적 문제로 파악하는 이론들을 낳
 아 왜곡된 실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서 남성에 의한 성차별만을 경험한 백인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해방론은 성해방을 여
 성해방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남·여
 를 적대적인 대립관계로까지 설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對남성
 투쟁의 양상을 띠며 異性愛보다 同性愛를 가장
 이상적 모델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
 천'하고 있기도 하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소개·도입된 여성
 학도 바로 이러한 이론적 경향과 실천내용을 갖
 는 미국 여성학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학
 導入 主體들은 중상층 이상의 계급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 여성의 대다수를 접하는 기층민중 여
 성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미국 여성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의 폭압적인 維新獨裁가 지배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여성학의 생명인 '실천'
 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일지라도 주장될 수 없었
 다. 여성에 관한 연구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여
 성의 동원과 활용의 필요에서 진행되었고, 여성
 학 개설도 이러한 상황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
 었다. 따라서 여성학의 실천성은 약화 내지 생
 략되어 버리고 여성문제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내용만이 부분적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학 교과내용은 한국 여성의 구체적인 현
 실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로 서구의 여성해방
 이념을 無批判的으로 소개하거나, 서구 여성학
 이론의 시각에서 여성의 법적·정치적·경제적
 차별 현실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할 뿐이었다. 한
 국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식 위에 결
 대다수에 해당하는 기층민중 여성문제를 분석하
 여 적극적으로 韓國 女性解放論을 담고 있는 연
 구와 강의는 全無하였다. '80년대 초반 한국과
 미국 대학의 교과내용에 대한 비교 자료를 보
 면,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제3세계 여성문제
 를 다루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 것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 더구나 학문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운영
 된 팀티칭의 강의방식은 여성학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사회적·경제적·정치

적 조건에서 형성된 미국 여성학 체계와 이론 및 교과과정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산은 남성뿐 아니라 대다수 여성에게도 여성학과 여성운동에 대해 否定的 認識을 강화시켰다. 이에 대한 학계 안팎의 여성학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초기 여성학은 관점과 내용을 떠나 어떻게 학계에 存立할 것인가, 그리하여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정당한 位置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였다. 때문에 여성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도 학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여성문제를 연구·교육하는 그 자체를 실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년대 말부터 미국 여성학을 비판하고 民族的·民衆的 性格을 증시하는 흐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제3세계 여성해방론이 소개되고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결합시켜 보는 계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분단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민족문학론의 영향 및 여성학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회학의 실천적·비판적 성격을 증시하는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학이 미국 편향적 여성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성문제에 대한 科學的 認識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과학으로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며,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는 '새로운 여성학'은 '80년대 중반 여성운동권의 주도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던 여성학에 대해 일정하게 합의된 개념이 정립되었다. 즉, 여성학이란 여성운동의 실천적인 전략을 위해 여성문제의 理論的 體系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으로서 여성문제의 現象과 原因 및 構造에 대한 이론적 해명 그리고 해결 전망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女性問題란 여성이 生物學的 性을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성적으로 차별·억압받는 현상이다. 이에 여성학은 남·여의 생물학적인 性差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여성의 특수한 생물학적 조건을 매개로 여성을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억압하는 것을 그 대상

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 다른 인간을 지배·억압하는 내용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性, 人種, 연령 등 자연적·생물학적 조건을 매개로 나타나는 각종 차별·착취·억압의 제도와 구조 및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人間解放의 學問이다. 즉, 여성학은 남·여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기보다 자연적인 조건을 매개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억으로 억압받고 피해받는 수많은 남성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한다. 여성학의 목적은 남·여 모두가 獨立的·自主的 人間으로서의 개성과 자질이 존중되며, 평등하고 서로를 속박하지 않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학이 인간해방을 위한 여성 연구로서 정립되고 연구·교육되기 시작하면서 여성학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기층민중지향적·빈척지향적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급속하게 대중적 확산을 이루게 되었다.

2. '새로운 여성학'에 의한

女性學의 發展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며 사회운동과 사회과학의 인식들은 질적 전환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 역시 성장의 轉換期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82년 이화여대의 대학원 과정에 여성학 석사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전문 여성연구자들이 조직적으로 양성·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한국 여성학은 미국 여성학 이론의 무조건적 수용과 이해에 급급하던 단계를 벗어나 韓國 適用 문제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1983년은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학 발전에 도약의 해가 되었다. 시구 여성학의 도입 주체인 전임교수와 주로 창작·예술 분야의 전문적에 종사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성차별적 家父長制 文化를 타파하고 평등한 문화창조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문화' 모임이 만들어져 출판활동을 중심으로 한 女性文化運動을 전개하기 시

작했다.

또한 여성학 연구자와 학생운동 출신의 여성들이 결합하여 大衆 女性運動 단체인 '여성평우회'를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성평우회'는 분단 이후 유일하게 존재했던 여성 활동—관변 주도의 친미·반공·어용적인 중상층 여성들의 사교 친목 모임—과는 달리 최초로 기층민중 여성에 무게중심을 두며 중상층 여성까지 포괄하는 대중 여성운동단체였다. 또한 진보적인 청년여성활동가 중심의 '민청련 여성부'가 구성되어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과 한국 여성운동론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韓國 女性運動論 정립을 위한 활발한 논쟁들은 서구 여성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여성 현실에 기반한 여성운동론의 정립이 시급함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특히 맑스주의 원전들과 더불어 맑스주의 여성해방론도 공개적으로 출간·소개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구성체 논의는 여성해방 논쟁을 더욱 촉진시켰다. 더불어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 여성운동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논쟁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중점적인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여성문제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여성문제 起源 논쟁으로 이는 곧바로 현재의 여성문제인 자본주의 하 여성문제의 구조와 본질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 여성운동론은 여성문제의 기원과 자본주의 하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해 대체로 이론적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즉, 여성문제의 기원은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인한 '계급사회 출현'과 그 기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 여성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계급모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보았다. 또한 여성문제는 여성이 처해 있는 社會·經濟의 조건, 民族의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서구 선진자본주의 여성들과 제3세계 여성문제의 차별성 및 분단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여성문제의 특수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

하였고, 이는 한국 여성학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實踐'을 학문의 생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학의 성격으로 인해 실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쟁과 그로 인해 드러난 인식의 차이는 여성학 연구자들간에 여성문제와 그 해방론에 대한 더욱 격렬하고 광범위한 논쟁과 연구를 촉발시켰다. 서구 여성해방론에 입각해 다양한 방식과 위상의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학 연구자들은 여성운동권의 서구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여전히 서구 여성해방론을 적극 옹호·수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급의 부차적 문제로 여성문제를 설정하는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비판하면서도 맑스주의 연구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맑스주의 여성해방론과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었다. 첫째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주로 서구에서 여성학을 직접 도입한 한국 여성학연구의 첫세대들이었고, 둘째와 셋째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위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保守的·反民族의인 학계의 분위기상 여성학 역시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의 관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문제의 발생 원인과 본질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맑스주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더불어 社會科學으로서의 여성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87년 이후 맑스주의 방법론과 여성해방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變革指向의 여성 학술단체가 창립되면서 맑스주의 연구방법론을 적극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결집되었고, 토론과 연구가 진일보하기 시작했다.

여성학계가 여성학 연구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 차이를 드러내며 토론과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의 여성학·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된다. 운동론을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와 노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학생들은 性과 階級 관계를

높고 성모순을 강조하느냐, 계급모순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제도권과 운동권, 친미 부르조아 관점과 민족적·민중적 관점이나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급기야 학생들은 여성학 개설을 요구하며 강사 선정권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학내 敎科改編 문제에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더불어 여성학은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에서 매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여성학 개설방식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학의 敎養必須化에 대해 '85년 1학기 수강자 중 47.9%가 찬성한 것에 비해 '88년 1학기에는 70.4%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여성학 개설 주제도 '87년을 기점으로 학교 당국이나 교수 등에서 학생들로 변화되었다. 개설 학교수도 전자에 의해 주도된 '77년에서 '86년까지 31개 교인 것에 비해 학생들, 특히 여학생회의 주도로 개설된 '87년에서 '90년도까지는 35개 교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 여성학이 양적 성장을 하는 동안 여성연구자의 양적 증가는 물론 연구 수준도 심화되었다. 특히 女性研究에 맑스주의 방법론의 수용은 사회학과 여성학 연구자 중심의 여성 연구를 문학·역사·철학·정치 등의 학문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학문 중 민족적·민중적 관점을 중시하는 학문적 열기와 여성운동의 비약적 발전 및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중적인 확산으로 각 분과학문 여성연구자들의 여성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들은 女性學術團體로 결집되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학이 기본적으로 間學問的 性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계에서의 여성연구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각 분과학문 연구자와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여성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학문영역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여성학은 서구에서 활발하고 精緻하게 진행되는 여성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타시함으로써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심도있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관점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여성학은 여성학의 영역 확대와 연구자의 확산을 낳았고, 여성연구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도 성장하여 여성학 개설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 기존의 미국 여성학 중심의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한국 여성 현실에 기반한 韓國 女性學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강의자들 역시 미국 여성학 강좌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주교재 없이 주제별로 논문이나 자료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었다. '새로운 여성학'에 의한 여성학의 발전은 새로운 교과서의 출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3. 새로운 敎材 開發과 주요 講義內容

새로운 교재개발 이전에 여성학 강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교과서는 1979년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에서 출판한 『여성학』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서구 여성학을 중심으로 소개했을 뿐더러 한국 여성현실에 대해서도 서구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각 필자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한국사회 인식이 부채하거나 편차가 커 이 책을 통해 여성학과 한국 여성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없었다. 더구나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발전 속에 이미 여성학 강의내용은 이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성학』 이외의 교과서로 연세대 여학생회가 발간한 『남녀평등과 인간화』(1986), 동국대 여성학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여성학』(1987), 중앙대출판부의 『여성교양』(1988)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들 역시 이화여대에서 출판한 『여성학』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한 학기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여성학 강의의 특수성으로 '敎科書의 不在'는 강의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성학은 간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교과서 없이는 여성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었다. 새로운 여성학을 통해 개발된 교과내용에 맞는 여성학 교재의 개발은 여성학계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연구회'가 새로운 教材 開發을 시도하였다. '90년초 교과서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교과서의 주제와 내용을 토론하며, 새로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족되어야 함을 정리했다. 첫째로 한국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 이를 바탕으로 남·여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대안과 여성해방의 전망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敘述 原則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관된 관점으로 한국 여성문제를 서술하되 여성문제를 현상 그 자체로만 드러내어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분석이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현실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그리하여 한국 여성문제가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한국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역으로 여성문제 해결 없이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서술 원칙에 의해 主題와 體制가 결정되었다. 주제는 교양 여성학개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체제는 강의에 중점을 둔 강좌식 체제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여성학개론 강좌의 체제는 이미 '새로운 여성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국 여성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발되어 채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출간된 교과서는 제 1장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제 2장 한국사회 구조와 여성문제, 제 3장 성차와 성역할의 사회화, 제 4장 여성과 가족, 제 5장 성과 사랑, 제 6장 여성과 노동, 제 7장 여성농민 문제, 제 8장 법과 여성현실, 제 9장 여성해방 문학, 제 10장 세계의 여성운동, 제 11장 사회주의와 여성현실, 제 12장 한국 근대 여성운동사, 제 13장 한국 현대 여성운동사로 구성되었다.

주제와 체제가 결정되면서 筆者 선정에 들어갔다. 필자 선정 원칙은 한국여성연구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변혁지향적 관점을 갖는 연구자라면 필자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15명의 연구자들이 집필자로 구성되었을 때, 비회원이 5명으로 1/3을 차지했다. 구성된 집필자들과의 공동토론을 거쳐 주제와 서술 원칙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필자들은 집필에 들어갔고, 작성된 원고는 다시 분과별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관점의 통일'과 더욱 읽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자의 최종 원고는 다시 선정된 편집위원회의 검토와 윤문 작업을 거쳐 출판사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기획한 지 1년 6개월 만에 『여성학 강의』는 출간되었다.

『여성학 강의』는 다른 여성학 교재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이 책은 서술 원칙과 관점의 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공동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과 한국 여성현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韓國的 女性學'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격에 해당하며 과학적인 여성문제 인식을 위한 제 1장, 세계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여성현실을 다룬 제 10장과 제 11장을 제외한 모든 주제는 한국 여성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룬 글들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 그 자체로서의 여성학이 아니라 '實踐的 女性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해방의 전망을 조명하기 위해 여성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와 같은 특징 이외에 『여성학 강의』는 몇 가지 意義를 지닌다. 첫째, 『여성학 강의』는 대체 교과서라기보다 교과서 그 자체가 부재한 가운데 개발되어 여성학 강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 여성학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비자주적인 여성학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기층민중 여성현실에 초점을 맞춘 주체적·자주적인 '한국적 여성학'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에서 여성학을 전공하고 연구한 첫세대들을 주축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일관된 관점하에 철저한 공동연구와 작업을 통해 교과서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성학 강

의』는 여러 問題點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공동연구의 원칙이 모든 주제에 일관성 있게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제에 따라 관점을 비롯해 체제와 서술방식, 분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학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쓰여진 교과서였음에도 내용이 너무 어렵고 문장도 거칠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필자들의 능력에 기인하지만, 연구자들이 여성학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만큼 연구성과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제의 일부가 빠진 점이다. 이는 여성학 연구의 일선에서 오는 것으로 '한국 여성학 방법론', '여성학과 정치', '북한 여성' 등은 기획단계에는 포함되었으나 집필단계에서 필자를 찾지 못했다. 셋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견해에 입각한 여성문제 연구방법에의 접근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과서가 학생들에게는 여성학의 여러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지적 자극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 역할에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여성학 강의』는 빠른 시일 안에 改正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여성학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자세와 노력에 비해 민족적·민주적·민중적인 한국 여성학의 정립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韓國 女性學의 定立을 위해서는 미국 의존 일변도의 여성학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보적인 여성학이 맑스주의 패러다임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조야한 연구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개정 교과서에는 진보적 여성학계에 던져지는 문제제기에 성실히 고민하고 연

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展望과 課題

지금까지 여성학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80년 후반 이후 여성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새로운 여성학'과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교양교재 개발'이라는 기획과는 달리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소개와 의의가 자세히 언급된 것은 학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女性學의 位相 때문이었다.

현재 여성학은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을 뿐 교양필수화라든가 학부의 독립 학과로 발전하기에는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성학이 독립 분과학문으로서의 발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인가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들이나 관점을 떠나 모든 여성학 연구자의 최대 관심사이다. 아무리 '실천'이 중요하다고 해도 연구자로서의 전망이 너무나 불투명할 때는 그 실천의 의미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성학의 발전은 곧 한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발전이고, 이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평등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인 바 여성학에 대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여성학은 여성학의 학문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족적·민중적인 '韓國 女性學'의 토착화를 위해 방법론과 관점의 차이를 떠나 더욱 수준 높은 교과과정의 개발, 이에 기초한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결집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